

다문화 시대의 서사 교육 시론*

- 『영원한 이방인』을 중심으로

김용재(전주교대)

<목 차>

I. 서론	III. 다문화 이해 교육 요소 탐색
II.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서사 문학	IV. 결론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편입되어 가고 있다.¹⁾ 국제결혼의

* 이 논문은 2009년 전주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다문화 사회란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장지표, 「다문화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다문화통합 사회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8, 1-2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7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06년 7,998명에서 2008년 18,778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0년 초에 발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우리나라 영아의 33.2%, 3-5세 유아의 19.2%, 초등학생의 15.3%, 중학생의 12%, 고등학생의 10.1%, 대학생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강중민, 「대한민국의 급속한 다문화화와 다문화교육」, 『새교육』, 한국교원신문사, 2007, 18-19면.)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김미나, 「다문화교육정책의 추진 체계 및 정책 기제 연구: 행위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이입으로 사회와 학교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적 다양성이 심화된 형편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하여 교육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이요, 다른 하나는 다문화 교육의 교육과정 마련과 실천이다. 전자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한국 문화교육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지원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도권 교육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과 그 실천으로 요약된다.

교육의 실천은 목적과 대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교육의 목적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인의 사회적응과 발전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교육 대상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성에 근간하며, 교육의 내용은 대상과 목적에 맞는 이론과 그 실천으로 선정된다. 문학문화 창조를 목표로 하는 문학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제재나 내용의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문학은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와 인식의 내용을 개별화되고 내면화된 감동으로 이끌어 주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학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²⁾.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문학 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에 초점을

주체별 정책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2권 2호, 2009.를 참고하기 바람.

2) 문학교육의 실천에서 서정문학에 비해 서사문학이 문화 창조 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인식의 구체적 표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서사의 소통 구조 자체가 교육 효과를 올리기에 적절하다는 데 있다. 셋째, 서사가 인간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넷째, 자아와 세계의 발견과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유리하다. 특히 자아 정체성 찾기, 세계의 발견과 탐구에 유리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정립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서사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학교육의 역할이나 가치, 그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식에 대하여는 김용재, 「서사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학교육방법 시론」, 『한국초등국어교육』 23호, 2003.을 참고할 것.

맞추고자 한다. 특히 서사 문학은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장르이다. 이 논문에서 서사 문학 교육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동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대두하였다.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민 국가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한 유럽의 각국에서 정치적 필요에 부합하였기에 이 이론은 새로운 문화주의로 떠오르게 되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크게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볼 정책으로 구분되어 상징화된다. 주류문화와 주변문화를 경계하는 요소를 설정하고 주류사회의 편입이나 적응을 강제하는 것이 전자의 입장이라면, 각자의 소수 문화를 인정하고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주변문화를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각각의 문화가 그 사회에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후자의 입장이다.

다문화 교육 도입 초기에는 기존 주류문화의 적응을 목표로 하여 새 인종이나 민족에게 언어와 문화 적응을 하는 데 적절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각각의 샐러드가 모여 서로 어울리며 새로운 맛을 낸다는 샐러드볼처럼, 기존의 주류문화 속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른 국가 출신에게 우리의 언어나 문화를 강제하지 않고 타국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의 다문화 교육은 성별, 계층에 따라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류 계층에게 다문화사회를 이해시킴으로써 인종적 배타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존과 존중의 시각을 교육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서사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설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양식은 인물과 사건, 배경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새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서사의 플롯은 인간의 삶의 양식과 동일 구조에 놓여있어서 쉽게 가치의 동일화를 불러온다. 한 인물의 운명과 사건의 추이 속에서 독자는 동조와 심리적 격리를 느끼면서

내면화된 감동을 받는다. 서사 문학작품이 다문화 교육에서 중심체제로 설정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후 III장에서는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원제: "Native Speaker")을 소재로 하여 다문화 교육의 요소를 추출해 본다.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헨리)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로 편입된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환유 또는 제유(提喻)형식으로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한 사례를 서사 교육에서 찾고자 하는 시론의 성격을 띤다.

II. 다문화 이해 교육과 서사 문학

다문화 교육에 대한 대략적인 목표나 내용, 성격을 규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이주자의 사회 적응이나 다양한 문화의 수용으로 한정 짓기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주류 문화의 성격 규정, 공통교육의 내용 선정, 이주자뿐 아니라 주류문화 편성자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교과별로 다문화 이해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과 방법을 천착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유형은 '소수자 적응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상호 이해 증진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소수자 적응교육은 기존 주류 사회가

3) 이에 대한 논의는 황규호, 양영자, 「한국 다문화교육 내용선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 연구』, 26권 2호, 2008, 65-68면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여기에서 필자들은 다문화 교육의 쟁점으로 일반교육과의 관계 규정 방식에 따른 쟁점, 유사개념과의 관계 규정방식에 따른 쟁점, 다문화교육의 유형 구분에 따른 쟁점으로 나눠서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동화(同化)주의 관점이 작용한 태도이다. 소수자 정체성 교육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소수자 집단들의 고유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이다. 반면에 ‘상호이해 증진 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문화의 일반인이나 소수 문화의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차별과 편견의 극복을 핵심과제로 삼는 태도이다.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공통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면, 각 교과별로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그 방법론을 마련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어교육계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⁴⁾. 문학 제재를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려는 노력은 이와 같은 개별 교과와 다문화 교육방안 탐색의 한 방향이기도 하다. 문학문화 창조에 목표를 둔 문학 교과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문화적 문식력’(culturai literacy)을 갖춰 단순한 문학지식의 습득이나 가치 교육의 도구에 머물지 않고 주체성 교육, 문화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문화 교육 교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⁵⁾ 서사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학교육에서

4) 최근 국제한국어문화학회에서 개최한 2011년 춘계학술대회(『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는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국어교육학자들은 국어교육이 문화 다원론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문화 교육의 대상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국어교육에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어 능력과 문화적 문식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다문화 사회에서 국어는 “개인적 소용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들의 소통과 교류·협력의 도구”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송현정,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변화 방향 탐색」, 『다문화 사회의 학교 교육』, 2011, 128-130면 참고).

5) 문화적 문식성이란 개인이 사회나 문화의 소통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문화 지식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개념과 국어교육의 시사점에 대하여는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15집, 국어교육학회, 2002.와 같은 저자의 「학교교육과 다문화

문화론적 관점을 도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⁶⁾ 서사는 인간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인식의 구체적 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는 인간의 삶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되며, 자아와 세계의 발견과 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제재의 선정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반편견 교육, 국제이해 교육, 타문화 이해 교육으로 한정 지어 단편적인 도구로 활용하면 진정한 상호이해 증진 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교육의 대상이 이주자뿐 아니라 일반 학생을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교육대상자 모두의 주체의 형성, 정체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방법도 텍스트의 해독과정이나 이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문화와 연관시키면서 중국에는 ‘가능한 세계’의 탐색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사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주는 서사 텍스트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경험과 연관시키고 이를 사회 공동체와 연관시켜 가능한 세계의 탐색 또는 새로운 세계의 인식의 단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교육 활동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확산적 사고, 대응적 사고, 창조적 사고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형식을 띤다.⁷⁾

Ⅲ. 다문화 이해 교육 요소 탐색

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다문화 사회의 학교 교육』, 국제한국어문화학회, 2011.을 참고하기 바람.

- 6) 서사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용재의 앞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 7) 여기에서는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서사 교육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서사 교육의 방법은 서사의 소통 구조에 바탕을 둔 내용 범주와 문화기호학적 실천 범주를 고려하여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재의 같은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이 논문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의 제제로 선정한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은 탐정 소설적 구조와 기법을 동원하여⁸⁾ “새로운 ‘자아 찾기’의 주제 의식”⁹⁾을 “서구 지배담론의 폭정을 극복하는 탈식민적”¹⁰⁾ 관점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창래는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정신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1.5세대 한국계 미국작가이다. 처녀작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을 1995년에 발표한 후, 『제스처 인생』(A Gesture Life)(1999), 『가족』(Aloft)(2004)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에서 문학적, 대중적 성공을 거두고 미국문단의 중견작가로 자리 잡았다.¹¹⁾ 『영원한 이방인』은 원제인 Native Speaker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한국계 미국인인 헨리가 미국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구성된 장편소설이다¹²⁾.

이 소설은 주인공 ‘나’(헨리 박, 한국명 박병호)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을 보여주면서 자아 정체성 찾기를 중심 플롯으로 삼고 있다. 헨리는 영국 여자인 릴리아와 결혼하여 아들 밋을 두고 있고, 미국인 데니스 호글랜드가 경영하는 사설 탐정소에서 일하면서 한인 출신 정치인인 존 강의 뒷조사를 한다. 주류 사회의 편입과 원어민

-
- 8) 유선모, 「1990년대의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경향」, 『한국계 미국 작가론』, 신아사, 2004, 163면.
 - 9) 조규익, 「바벨탑에서의 자아 찾기」, 『어문연구』 제34권 2호, 어문교육연구학회, 2006, 177면.
 - 10) 방정민,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연구」, 『비교문학』 제48집, 2009, 151면.
 - 11) 한국어 번역판은 정영목 역, 『영원한 이방인』, 나무와 숲, 2003., 정영목 역, 『제스처 라이프』 1권, 2권, 랜덤하우스중앙, 2005., 정영문 역, 『가족』1, 2, 랜덤하우스중앙, 2006.이 있다. 처녀작 『영원한 이방인』은 반즈 앤드 노블스 신인작가상, 헤밍웨이 재단상, 펜문학상 등 크고 작은 문학상 6개를 수상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창래는 미국문단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신인작가로 떠올랐다. 현재는 프린스턴 대학 창작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다.
 - 12) 앞으로의 논의는 정영목 역(2003) 판을 텍스트로 한다. 이 작품은 565쪽의 긴 분량의 장편소설이다. 작품을 인용하는 경우,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며 쪽수만 표시한다.

같은 언어구사로 완전한 Нью커가 되고 싶은 헨리의 자의식은 부모의 삶과 현재의 자신의 삶 속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진정한 미국인, 세계 시민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이 작품은 헨리의 고백 형식을 토대로 디아스포라의 현주소, 또는 이주자의 정체성 찾기 과정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갈등 요소의 핵심은 크게 ‘언어’ 문제와 ‘문화’적 갈등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는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 찾기에 수렴된다.

1. 원어민의 의미와 언어 문제

『영원한 이방인』은 ‘나(헨리)의 아내인 릴리아가 ‘나’의 일로 잠시 자신을 떠난 후의 회고담으로부터 시작된다. 플롯은 릴리아가 작성한 목록¹³⁾의 의미를 추적하며 ‘나’의 성격과 사건을 추정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독자는 ‘나’의 고백과 사건의 진전을 탐색한다. 목록을 통해 독자는 이미 주인공이 미국 사회의 백인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하며, 그가 하는 일이나 여러 사건과 상황을 추측하며 주인공의 성격을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수수께끼 제시와 그 해결의 구조는 플롯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읽는 즐거움까지 주고 있다¹⁴⁾.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가 황인종의 얼굴을 하고도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므로 아시아계 미국인뿐 아니라, 백인 미국

13) 아내인 릴리아가 ‘나’를 떠나면서 작성한 ‘나’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숨기는 게 많아/ 인생에서는 B+짜리 학생/ 무엇보다 먼저 바그너와 스트라우스를 흥얼거리는 사람/ 불법 외인/ 정서적 외인/ 장르광(狂)/ 황禍(黃禍): 신 미국인/ 침대에서는 홀랑함/ 과대평가되고 있음/ 파파 보이/ 감상주의자/ 반낭만주의자/ —분석가(빈 칸은 스스로 채우도록)/ 추종자/ 번역자/ 첩자 (25쪽)

14) 이러한 구조는 작가 특유의 수려한 문체와 어울려 읽는 즐거움을 주고 있어 대중적 성공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인마저 놀란다. 그 놀라움은 원어만 ‘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의아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그 놀라움은 황인종이 어떻게 영어를 잘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원어민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다. 원어민은 모국어를 사용하기에 언어의 선택이나 발음, 문법을 의식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뿐이다. ‘나’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 하지만 무척 “의식을 하면서” 언어사용을 하는 “영어에 능통한 미국 사회 내의 외국인”¹⁵⁾일 뿐이다.

헨리가 동화하고자 한 WASP¹⁶⁾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개물일 뿐 아니라 문화나 이념을 대변하는 언어의 습득이 우선이다. 백인중심의 미국이 언어를 통해 “국가라는 하나의 동질적이고 이데아적인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¹⁷⁾하면서 주류 사회를 편성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타국 출신 미국인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탑 아래에서 동화되려고 힘겨운 싸움을 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바벨탑’으로 인지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 로물루스와 레무스(고대 로마의 건설자—
 움긴이) 생각을 한다. 고집 센 아이들. 지금 그 아이들이 그들의 웅장한
 도시 로마와 그 시민들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전성기의 로마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살았다. 외부의 민족들을 사절, 연인,
 병사, 노예로 도시에 데려왔다. 이 사람들은 토착의 양념과 직물, 의식, 전
 염병을 가져왔다. 그리고 언어도, 고대 로마는 최초의 진정한 바벨이었다.
 뉴욕 시가 두 번째임에 틀림없다. 또 그 마지막이 로스앤젤레스가 될 것
 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 눈부신 곳으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1라틴어를 배워야 한다. 낡은 혀를 누르고 입술을 느
 슌하게 풀어라. 들어라, 미국 도시의 기침과 외침을.(밀줄-필자, 392쪽)

15) 이해경,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 회복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11면.

16) 앵글로 색슨계 인종의 백인 신교도. 미국 주류문화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17) 박수정, 「이창래 소설의 백인성의 신화와 해체」,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6-17면.

인용문은 ‘나’가 언어교정 수업을 하고 있는 아내 릴리아의 교실에서 언어수업을 받는 아시아계와 남미계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다. 어린 시절 방과 후에 언어 보충교육을 받던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원어민의 언어는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면 원어민과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민자나 그 자녀들에게는 미국 주류 문화사회 속에 완전히 소속되어 진정한 미국인의 정체성을 주장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힘들다. ‘나’는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타인이 어떻게 자신의 영어 발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아내인 릴리아와 대화 장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구체화된다.

(1) “얼굴도 방정식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달라요. 자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맞추어 보라고 한다면, 원어민이 아니라는 쪽에 걸겠어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무슨 말예요?”

“내 이름을 말해 보세요.”

“릴리아.” 내가 말했다. “릴리아.”

“들었죠? 릴--야 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모음 소리를 귀여겨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36쪽)

(2) 나는 늘 말을 하다 잘못을 저지르곤 한다.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더듬거리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한다. 릴리아는 말을 하는 어떤 정신적 통로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도 가끔 little 대신 riddle이라고 말하고, vent 대신 bent라고 말한다. 물론 악센트가 전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의 흐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중략)--유치원에서 아이들은 나를 ‘공깃돌 입’이라고 부르곤 했다. 내 묶인 혀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비틀리는 바람에 잡음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337-388쪽)

인용문 (1)은 ‘나’와 아내 릴리아와의 연애시절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둘은 릴리아가 일하는 구호기관 사무실 옆 벤치에 앉아 ‘혼합어’¹⁸⁾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릴리아는 헨리가 원어민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 색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에서도 찾고 있다. “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헨리의 모습을 지적한다.¹⁹⁾ 인용문 (2)는 영어로 말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태생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영어에 힘들어하는 부모, 자신은 유창한 영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어린 시절 영어 때문에 놀림을 당했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미국 이주민 1.5세대가 갖는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문화와 인종, 이념의 코드가 언어에 내포되어 있다. 이주민 입장에서 영어는 신세계의 바벨탑이기도 하지만, 권력과 문화의 상징성이 되기도 한다. 헨리의 아버지는 단돈 200달러와 “영어 몇 마디”를 가지고 미국 땅에 건너와 청과상을 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살기 위해 장시간의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영어밖에 구사하지 못했지만 경제적 성공을 이뤄 미국사회에 적응하였다. 아버지는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유독 ‘나에게는 영어로 말한다. 아버지에게 있어 ‘영어’는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적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이며, 가정 내의 권력이기도 했다. 어머니와의 말다툼에서 한국어로 하다가 거부장적 권위를 드러내고 싶을 때는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영어로 강렬하게 말을 퍼붓기까지 했다. 어머니의 묵언은 곧 아버지의 말과 행동의 수궁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수용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미국사회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에게 있어서

18) 남미계 미국인들이 영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릴리아가 혼합어라고 표현한다는 점을 ‘나’의 시각에서 옮긴 내용이다.

19) 릴리아가 작성한 ‘나’에 대한 목록을 보다가 우연히 침대 밑에 있는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언어를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다.

언어는 이처럼 거대한 바벨탑이요, 권력이요 힘이였다.

(1) 내가 1학년 때, 우리 집과 우리 언어라는 사적인 영역을 떠난 최초의 시기의 일이었다. 나는 영어가 우리 한국어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다른 종류의 외투를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중략)-- 내가 처음으로 대마초를 피운 뒤에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며 하던 말이 기억난다. 네 눈이 온통 이끌렸구나(led, 빨강다는 뜻의 red를 잘못 발음한 것--옴긴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으로 가서 눈물이 나오도록 웃어젖었다.(387쪽)

(2) 사실 일반적인 백인 아이들을 위축시킬만한 적당한 말은 없다. 이 아기는 어떤 식으로든 그 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언어에는 방패가 있고, 우리로서는 공평하게 싸울 수단이 없다.(403쪽)

인용문 (1)는 ‘나’가 어렸을 때 가졌던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과 권위 있는 아버지가 영터리 영어로 자신을 혼냈던 아픈 기억을 하는 장면이다. 인용문 (2)는 원어민이 아닌 이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언어의 힘에 대해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영어 사용은 단순히 사회 적응의 한 수단이 아니다.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권위와 주류사회의 상징체이고 주변이 아닌 중심의 표상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나’와 백인 여성 ‘릴리아’의 결혼, 아내가 하는 일이 외국 출신 아이들의 언어 교정수업을 하는 교사로 설정된 점, ‘나’가 한국계 출신 정치가의 뒷조사를 하는 첩자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 출신의 미국인들과 조우하는 플랫폼으로 구성된 점 등은 영어를 통해 자기를 찾는 여정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2. 가족의 의미와 ‘침묵’의 문화

문화는 “학습되고, 전승되고, 공유된 사회적 유산”이며 생활 방식의 구

체적 실천 양상²⁰⁾이다. 문화는 민족, 인종, 공동체, 종교, 사회계층, 교육 수준의 변인에 따라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미국 사회에서 ‘나(헨리)의 정체성 탐구는 이주민을 뜻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계통적 명명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단어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라는 다양한 이질적 문화가 끼여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혼종성 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으로 고유한 미국인도 아니며,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고유한 미국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전제”²¹⁾가 이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소설에서는 문화적 갈등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나’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지향성 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인 존 강의 뒷조사를 하면서 스파이 일을 하는 ‘나’는 주체로서의 ‘나’가 아닌 타자에 의해 규정된 ‘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스파이라는 직업은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허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서 사회의 주체가 아닌 엿보는 자²²⁾로서 존재하는 성격을 지닌다. 사회 현실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나’는 자기 정체성을 타자에 의해 규정되는 모습에서 찾고자 하였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인종적 한계를 알면서도 완전한 미국인이 되기 위해 한국계 출신이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백인 여성인 릴리아가 결혼하여 완전한 원어민다운 삶을 영유하고자 하였고, 아들 맛이 동양적 이미지를 벗어나기를 바라기도 했다. 주류 백인의 가치관과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소수민족을 엿보며 그들의 정보를 빼내서 결국 주류집단의 기득권 유지에 공헌하”²³⁾는 줄도 모르고 타자의 시선에 규정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20) 강영안,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한국철학회 편,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1995, 210-219면 논의 참고.

21) 한혜숙,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Korean-American의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46면.

22) 왕 철,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엿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3집, 1996, 24면.

23) 이해경, 앞의 논문, 41면.

이러한 점은 이 소설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테제로 작용한다. 아들 밋이 7살 때 사고로 죽은 일과 그에 따른 아내의 부재²⁴⁾, 아버지의 죽음, 존 강의 몰락 등을 통해 ‘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나선다. ‘나’는 자신이 미국인이면서도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장면은 루잔과의 상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²⁵⁾ ‘나의 고민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인종적 한계에 따른 정체성 문제와 문화적 차이와 미국 문화 동화에 관한 내용이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여러 현상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릴리아와의 신뢰 문제를 깨뜨린 것 중의 하나는 스파이 일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가식적 행동, 진실성의 부족,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적 갈등이 핵심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가치 있는 것을 이해시키려면 한참을 설명해야 한다. 앞에 놔두고 먹게 해주면 느낄 수 있는 맛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조용히 적게 말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인데,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누구냐 하는 개념들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나도 내 유태인이나 이탈리아인 친구들과 비슷했으면 심지어 아버지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는 흑인 아이들 같았으면 하고 바란 적이 많았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방식, 아주 기뻐하면서 손과 엉덩이와 혀로 사실을 기념하는 방식, 보고 듣는 모두를 위해서 그 사실을 다 전시해 주는 방식(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이 부러웠다.(306쪽)

24) 아들은 백인 친구들과 ‘개쌍기 놀이’를 하다가 밑에 깔려 질식사하였다. 평소 인종적 차별로 놀림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아들 죽음의 원인을 두고 아내와 다툼도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릴리아는 목욕이 담긴 욕지 한 장을 남기고 여행을 떠나 ‘나’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25) 루잔은 필리핀계 미국인으로서 정신과 의사이다. 스파이 일을 하던 ‘나’는 그의 뒷조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친구처럼 된 사이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중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문화적 차원 말입니다.”라는 루잔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 사회, 문화와 연관시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인용문은 존 강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일을 알게 된 다음 그에게서 느낀 친밀한 감정과 동질감을 드러낸 후, 자기 생각을 서술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과 달리 존 강에게는 “나의 아버지나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기분이 좋았다.”(306) 아버지가 강조하였듯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챙겨야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 습관이다. ‘침묵’이 오히려 힘을 드러내는 기표이다. 반면에 미국의 문화는 자기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는 논쟁과 ‘표현’의 문화가 바탕에 있다. 주체의 자기 찾기에서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가족의 개념 규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릴리아가 생각하는 가족은 서로의 고민이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는 데 있다. 반면에 ‘나는 아버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 강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여 차기 뉴욕시장의 강력한 후보로 급상한 데에도 한국의 가족 개념이 크게 작용하였다. 존 강은 미국을 진정한 다문화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존의 가능성과 화합을 강조하였다.²⁶⁾ 특히 소수민족을 하나의 가족처럼 연계하여 ‘계’를 조직하고 상부상조한다. 계는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조국도 잃고 모국어도 잃은 이민자들에게는 가족 같은 연대의식과 신뢰를 보여준 장(場)이다. 한국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학연, 지연을 넘는 혈연적 집단으로 사회 구성의 강력한 힘이다. 반면 미국 사회에서의 가족은 자신의 삶을 영유하는 사회 소집단의 성격 그 자체이다. 문화가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기호라는 점은 호글랜드가 강조했던 스파이로서의 임무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호글랜드--인용자) 정체를 밝혀내는 진짜 첩자가 되려면, 우선 문화의 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344쪽)

26) 존 강은 한국전 전후에 고아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미국인 퇴역장교의 눈에 띄어 하우스보이로 미국에 왔다.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세탁소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돈을 번 후 정계에 입문한 시의원이다.

인용문은 루잔과의 일을 회상하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큰 줄기에 기대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용주인 호글랜드를 떠올리는 장면이다. 존 강은 “우리, 가족”을 강조하면서 계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떠오른다.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 또는 아버지와 같은 ‘가족을 위한 삶’, 한국계 미국인이 고수하고 있는 ‘침묵의 문화적 가치’는 소설이 후반부로 갈수록 패배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존 강의 몰락이다.

존 강 사무실의 화재 사건과 배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존 강의 추락은 탐정소설의 구조를 통해 긴박하게 서술된다. 강이 살롱에서 불법 고용된 한국계 미성년 접대부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실망시키고,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홍보담당 비서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결정적으로 사무실 화재 사건이 자신의 사무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복하고자 스스로 범한 일이라는 추악한 진실 고백을 듣고 ‘나’도 기부자 명단을 호글랜드에게 넘기게 된다. 이 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어 이민자들의 ‘아메리카 드림’은 해체된다. 존 강은 접대부와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이러한 몰락의 과정은 신뢰에 바탕을 둔 ‘계’의 문화, ‘우리, 가족’ 문화, ‘침묵’의 문화의 패배를 상징한다.

‘나’(헨리)는 ‘언어’와 ‘문화’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지 ‘정체성’을 찾아 나선다. 결국은 주류사회의 적응이나 편입은 불가능하지만 너-나의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는 범주에서 거대한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하이픈(-) 사이에 긴 존재이지만 그 하이픈은 양쪽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릴리아와 재회한 후 ‘나’가 그녀의 언어교정 수업을 참관하면서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장면도 이러한 의식의 표명이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진정한 사고와 행동을 묻는 열린 플롯의 형식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3. 언어와 문화를 통한 다문화 교육 활동

미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원어민과 같은 영어 구사가 첫 번째 조건이요, 바로미터이다. 또한 혼종성과 문화 횡단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계 미국인들은 문화의 새로운 접목이 과제로 떠오른다. 이 작품을 통해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한다면²⁷⁾, 언어와 문화가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확산적, 대응적 사고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가능한 교육 방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해 활동의 예

- *영어의 사용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을 정리하기
- *‘나’(또는 아버지, 어머니, 릴리아)의 영어 사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 *‘나’와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릴리아와 스튜어트(장인)부부 관계, ‘나’와 루잔, ‘나’와 호글랜드, ‘나’와 존 강 의 관계를 정리하기
- *‘게’가 존 강에게 어떠한 문화적·정치적 장치인지 파악하기
- *침묵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찾아보기
- *‘가족’의 성격 파악하기(헨리의 가족, 릴리아의 가족, 존 강 의 가족)

27) 이 작품을 제재로 하여 다문화 교육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공명수(2010)는 영어교육적 측면에서 이 소설작품을 선정하여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관점으로 주체행위성 교육을 제시하였다. 주체행위성 함양단계를 ①헨리의 갈등구조 이해 ②요하스의 주체행위성 학습 ③헨리의 주체행위성 부채원인 분석 ④헨리의 주체행위성 인식 ⑤헨리의 혼종성 수용 ⑥헨리의 혼종성 수용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나눠 논의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영어 교육과 다문화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접근으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 교육활동이 ‘혼종성에 바탕을 둔 주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칫 이분법적 사고, 획일적 목표 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공명수, 「이창래의 『원어민』을 활용한 주체행위성 교육」, 『영미문학교육』 제14집 2호, 영미문학교육학회, 2010.

(2)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의 예

- *한국어를 잘 구사한 외국인의 사례 경험 발표하기,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 만났을 때의 경험 발표하기
- *지역어(사투리)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오해를 받은 경험 발표하기
- *자신이 언어 사용(대화, 의사소통) 때문에 경험했던 황당한 사건을 떠올리기
- *친구들 모임 중에 소개하고 싶은 것(모임 이름과 하는 일) 소개하기
- *우리 가족의 성격 발표하기(대화, 의사결정, 부모의 역할, 자식의 위치 등)
- *자기표현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을 떠올리기

(3) 대응적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의 예

- *우리나라 일부지역을 영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하여 이야기해 보기
- *언어 사용 때문에 갈등이 생긴 다른 텍스트를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하기
- *생활방식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사회 갈등이 드러난 텍스트를 찾아 보기
-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역간, 계급간 문화 갈등을 상상하여 발표해 보기

위에서 제시한 교육활동의 예는 대략적인 방향이나 내용을 살필 수 있게 조직되었다.²⁸⁾ 여기에서는 서사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관점과 내용 선정의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영원한 이방인』은 미국 사회를 무대로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작품이다. 중심과 주변, 주체와 객체를 바꿔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적절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28) 구체적인 교육 계획, 즉 교육대상자의 선정(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방법 등은 사례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서사 문학작품을 활용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방향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시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IV. 결론

다문화 교육은 '상호 이해 증진'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존과 존중의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 문학 교육을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서사 장르는 유용한 제재가 된다. 서사의 플롯은 인간의 삶의 양식과 동일 구조에 놓여 있어서 쉽게 가치의 동일화를 불러온다. 한 인물의 운명과 사건의 추이 속에서 독자는 동조와 심리적 거리를 체험하면서 내면화된 감동을 받는다. 서사 문학 작품이 다문화 교육에서 중심제재로 설정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대의 서사 교육 방향성을 잡기 위해 『영원한 이방인』을 텍스트로 삼아 중심 플롯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나'(헨리 박)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자아 찾기'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중심 테제로 삼아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나는 원어민 같은 영어 구사를 하고자 하나 태생적 한계를 느낀다. '영어'는 신세계의 바벨탑이요, 권력과 문화의 상징체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주류사회의 상징체이고 주변이 아닌 중심의 표상이요 힘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아 정체성 찾기 과정도 인상적이다. '나'는 존 강의 배후 조사를 하는 스파이 생활을 하면서 타자에 의해 규정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나의 모습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하이픈(-)에 연결된 끼인 존재이다. 한국의 문화는 침묵의 문화로 대변된다. 반면에 미국의 문화는 표현의 문화,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문화이다. '나'는 한국의 침묵의 문화, 가족의식,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미국 사회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본다. 아버지의 말과 행동으로 대변되는 '침묵의 문화적 가치'나 존 강의 정치력의 숨은 힘인 '계'로 형상화된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는 결국 거대한 미국의 숨은 힘에 의해 해체된다.

주인공 헨리는 ‘언어’와 ‘문화’의 시각으로 미국 사회에서 무엇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지 정체성을 찾아 나섰다. 결국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한계에서 오히려 양쪽의 가치를 인정하면 거대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류사회의 편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로를 인정하는 범주에서 새로운 가치가 형성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플롯의 전개를 토대로 다문화 교육활동의 방향은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이해활동, 확산적 사고를 통한 자기경험과 텍스트의 조우, 대응적 사고를 통한 공동체 문화와의 교섭 작용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가능한 세계’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서사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주는 서사 텍스트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경험과 연관시키고 이를 사회 공동체와 관련지어 생각하여 가능한 세계의 탐색 또는 새로운 세계의 인식의 단계로 진전시켜야 한다.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 시대의 서사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서사 텍스트가 다문화 이해교육의 중심제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사의 플롯이 삶의 형식과 닮아있어 가치의 교호작용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미작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을 텍스트로 삼아 다문화교육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 소설에서는 헨리(‘나’)의 자기정체성 찾기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와 ‘문화’를 통해 미국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을 제재로 다문화 교육을 한다면, 텍스트 이해(사실적 사고)-개인 경험과 연관(확산적 사고)-사회공동체의 교섭 작용 탐구(대응적 사고)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 인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 공명수, 「이창래의 〈원어민〉을 활용한 주체행위성 교육」, 『영미문학교육』 제14집 2호, 영미문학교육학회, 2010.
- 김남국,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권 4호, 국제정치학회, 2005.
- 김미나, 「다문화교육정책의 추진 체계 및 정책 기제 연구 : 행위 주체별 정책 목표와 수단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2호, 다문화사회 연구학회, 2009.
- 김미영, 「이창래 소설에 재현된 한국여성과 한국문화」, 『어문연구』 제34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 김용재, 「서사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문학교육방법 시론」, 『한국초등국어교육』 23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3.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 2002.
- 박수정, 「이창래 소설의 백인성의 신화와 해체」, 부산대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박인기, 「문화적 문식성과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 연구』, 15집, 국어교육학회, 2002.
- _____, 「학교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다문화 시대의 학교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1.
- 방정민, 「이창래 소설,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연구」, 『비교문학』 제48집, 비교문학회, 2009.
- 송현정,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변화 방향 탐색」, 『다문화 시대의 학교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1.
- 왕철, 「〈네이티브 스피커〉에서의 옛보기의 의미」, 『현대영미소설』 3권 2호, 현대영미소설학회, 1996.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7.
- 원진숙,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 연구』 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 유선모, 「1990년대의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경향」, 『한국계 미국작가론』, 신아사, 2004.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1호, 교육사회학회, 2011.
- 장인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권 2호, 초등교육연구학회, 2008.
- 조규익, 「바벨탑에서의 자아 찾기--〈네이티브 스피커〉의 외연과 내포」, 『어문연구』 제34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 조영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교육과 교육 방향」,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 교육 연구센터, 2006.
- 황규호·양영자, 「한국 다문화교육 내용선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26권 2호, 교육과정연구학회, 2008.
- 이혜경,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에 나타난 정체성 위기와 인간관계 회복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영어교육 석사 논문, 2006.
- 이영애, 「〈원어민〉에 나타난 미국 다문화주의 비판」, 『영어영문학 연구』 제51권 2호, 영어영문학회, 2009.
- 한혜숙, 「이창래의 Native Speaker에 나타난 Korean-American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석사 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f Narrative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 focused on “Native Speaker”

Kim, yongja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present the methods of the narrative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age. The reason why the narrative text is able to be the topic centered in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s that the plot of narration is similar to the form of life and it causes the reciprocal action easily. In this research the multi-cultural factor is investigated based on the literary work 『Native Speaker』by Chang-Rae Lee. This novel shows the process of finding the self-identity of Henry. Especially the cross section of American society is indicated through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n case of using this literary work is based on the cultural education understanding the text(counter-factual thinking), the relationship of individual experience(divergent thinking), investigating the negotiation of social community(corresponded thinking) should be considered.

김용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560-75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kyjedu@jnue.ac.kr

이 논문은 2010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8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